금주의 법구–〈열반경〉
습한 땅에 잡초가 무성하듯
애욕의 습지에는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다.
애욕은 꽃밭에 숨은 독사와 같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7월 11일)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조계종 해외교구 사무처 法 개정후 4년만에 설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 10년간 해외사찰수가 57%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本紙 기획보도 이후, 조계종이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타개책으로 해외특별교구(교구장 정우) 국내 사무처 설치를 완료했다. 국내 사무처 설치는 지난 2017년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후 4년 동안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올해 本紙 보도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늦게나마 종단과 해외사찰과의 소통창구이자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내 사무처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해외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해외사찰 감소원인 분석한
本紙 보도 이후 본격 추진
사무처 필요성 공감확대돼

전법회관 3층 사무실 마련
실무인력 배치…업무 점검
부교구장에 정범스님 내정

조계종 총무원과 해외특별교구는 올 6월경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옆 전법회관 3층에 해외특별교구 사무처 공간을 확보하고 해외특별교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배치했다. 해외특별교구의 국내 사무처와 전담인력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미 비영리단체 등록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소속으로 해외사찰과 교류해 온 선정화 간사가 국내 사무처 실무인력으로 영입됐으며, 현재 법인 통장 개설을 시작으로 안거 기간 중 해외거주승 결계신고 접수 및 해외사찰 관련 민원들을 접수·처리 중이다.

국내 사무처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추가적인 인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사무처는 △해외사찰 및 포교소의 등록·취소 △주지·대표자의 품신 신청 및 절차 이행 △해외지회·연락사무소 설립 및 지정 △해외지회장 선출에 관한 업무 △해외파견승 추천 및 관리 △해외거주승의 신고 및 결계포살 △해외포교 및 해외사찰 홍보 △기타 교구에 속하는 사무 등을 담당·지원토록 명시돼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외특별교구장 정우스님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 스님이 8월 중 해외 방문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대략적인 방향성이 도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해외사찰 및 지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외 사정에 밝은 스님을 지회장 혹은 부교구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특별교구의 국내 사무처 설치는 지난 2017년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을 통해 이미 그 필요성이 공유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현실화되지 못한 채 4년이 지났고, 올해 초 해외사찰 급감의 원인과 대안 등을 분석한 本紙 기획보도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本紙 당시 보도에서 해외사찰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종법과 해외사찰 운영 국가의 법체계·상황의 괴리 △종단과의 관계성 약화 △전담인력 및 관련부서 부재로 인한 관리 미비 등이 지적했다. 취재 결과 해외사찰 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거주승 및 해외사찰과 관련한 종무행정 일원화와 전담인력 지원을 통한 행정지원 및 지속성을 중대한 개선과제로 꼽았다. 또 일선 사찰 현장의 목소리가 종단에 전달되는 토대, 즉 상시적 소통창구가 존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보도 이후 해당 사안은 올 3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해외특별교구 활성화 방안과 관련, 종책질의가 제기돼 재차 주목받기도 했다.

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2017년 해외특별교구 국내 설치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업무 일원화를 꾀할 해외특별교구 사무국 등 전담부서가 부재해 해외유학승 및 수행승, 소임자로 파견된 수백 명의 스님과 100여개 사찰에 대한 종단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사무처 설치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총무원 측은 "해외특별교구 사무처 설치와 사무국 인력 확보를 신속히 완료하고 해외사찰 지원에 대한 종무행정 체계 개선과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교구 사무처는 독립운영 체제지만 설치 이후 종무행정이 안정될 때까지 사무국 운영 지원과 종무인력 지원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해외특별교구 국내 사무처 설치와 관련, 교구장 정우 스님은 "사무처의 기본적인 역할과 업무 범위, 방향성은 현행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토대로 하되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해 말씀드릴 계획"이라며 "이후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사무처 공식개소를 알리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8월 12일 열린 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곽채기 만해축전추진위원장, 실천대상 수상자 보각 스님,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문예대상 수상자 오정희 소설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최상기 인제군수, 실천대상 수상자 김하종 신부, 윤성이 동국대 총장, 문예대상 수상자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모두 공존의 길로 나아갑시다"

만해축전위, 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 개최

다니엘 바렌보임 등 5명 수상
축전은 오는 10월까지 이어져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생명·평화·겨레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곽채기, 동국대 교무부총장)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최상기 인제군수 등이 참석했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에게 돌아갔다. 실천대상은 보각 스님, 김하종 신부가 받았다. 문예대상은 오정희 소설가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공동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시상식 법어에서 "수상자들 모두 평화, 화해, 이웃에 대한 자비, 인류애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라며 "만해축전은 '공존'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중시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 모든 생명체는 결국 '공존'의 길을 가야한다는 진리를 함께 깨닫고 실천해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다니엘 바렌보임은 "중동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지금, 대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가 주는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만해대상 수상을 통해 음악과 예술 분야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해실천대상 수상자 보각 스님은 "불교와 사회복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보살행의 실천"이라며 "후학들을 길러내는 일은 멈추었지만 현장에서의 실천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실천대상 공동수상자인 김하종 신부는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며 만해 스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흐트러짐 없이 주어진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한 소설가 오정희 씨는 "준엄한 기상과 도저한 자존과 지극한 유정함으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지향해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생을 높이 들어올리는 것, 그것이 문학의 중요한 소임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문예대상을 공동수상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 정신에 평화를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문화예술인으로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만해축전 명예대회장인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만해 스님의 '희망'과 '극복'의 생명철학을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수도권 사찰 법회 수용인원 10% 허용"

조계종,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 발표

정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조계종이 일선 사찰의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에 따라 정기법회(초하루·일요법회 등)시 참석인원을 수도권 사찰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 참석 가능), 비수도권 사찰은 20%로 제한한다"고 8월 9일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찰에서의 모임과 행사·식사·숙박들은 전면 금지되나 비수도권 사찰에서의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는 가능하다. 이 같은 방역수칙은 오는 8월 22일까지 이어진다.

조계종은 일선 사찰들의 일상 속 방역 지침도 내놨다. 이에 따라 사찰 내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도와 예불 집전, 동참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찰에서의 공양은 상주대중만 가능하며, 신도 및 외부인에 대한 대중공양과 공용 음수대, 공용 물품 운영은 중단된다.

사찰은 경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관리와 발열 체크를 실시해야 한다. 실내공간은 1일 3회 이상 환기를 시행하며 환기대장을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찰 상주대중에 대한 개인위생 강화와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도 주문했다.

조계종은 "방역수칙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이 상이한 곳이 많으므로, 관할지역의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 달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단 지침을 준수하는 주지 스님과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